운둔 속 만났던 사찰풍경, '또 다른 세계'로

'이강하 : 또 다른 세계' 展
이강하미술관 2월 2일~3월 23일

80,90년대 대표연작 '脈(맥)' 13점 전시
'발' 통해 전통의 '감춤의 미학' 표현해
광주민주화운동 참여, 5·18 민주유공자
위로받았던 불가적 풍경을 작품 소재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우리 전통 단청의 색깔인 오방색과 불가적 풍경을 서양화의 재료인 캔버스에 오일로 그려낸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강하미술관(광주광역시 남구)이 2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개최하는 2023년 소장품전 '이강하 : 또 다른 세계' 展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이강하(1953~2008) 화백의 1980~1990년대 대표 작품인 연작 '脈(맥)'으로 구성된 특별전으로, 전시되는 작품은 미공개 5점을 포함해 13점이다.

2018년 개관한 이강하미술관은 그동안 이강하 화백에 대한 연구와 작품세계를 현대적 관점에서 전문 평론가들과 대중이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제시하고 재조명하는 소장 작품 전시를 추진해 왔다. 이 화백의 시각예술적 지평을 더욱 넓히기 위한 이번 전시의 작품에는 '회화-이미지 세계, 이미지 안의 또 다른 진실'에 닿고자 했던 이 화백의 철학과 정신이 담겨있으며, 이 화백이 가장 불운했던 30대 시절에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으며 남겨진 시대의 기억과 상처 안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민족적 혼을 찾고자 했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 속에는 공통적으로 '발'(가늘고 긴 대나무로 엮어 만든)이 등장한다. 발을 경계로 불상이나 사천왕, 문수동자 등을 보이는 쪽과 보이지 않는 쪽에 나누어 배치했다. 발로 인하여 작품은 우리민족 전통의 '감춤의 미학'과 더불어 신비스러운 시각 효과를 보인다. 발 뒤로 불상이나 사천왕 등을 섬세하게 그려 극사실적 효과를 보이면서 발을 통해 감추어진 전통문화와 사상을 은유적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작품 전반에 보이는 채색은 우리 전통 단청에서 볼 수 있는 오방색이다. 불교적 세계관과 샤머니즘적 정서를 보이고 있는 작품은 오랜 시간 수행하듯 그려낸 설득력과 집념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맥_90.9×116.7cm_Oil on canvas_1983

이강하 화백은 1970년부터 남도 사람들의 애환과 한국미술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미적 탐구는 1980년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재학시절에 증폭된다. 하지만 이 화백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하게 되고 2년여 동안 지명수배자가 된다. 이후 이 화백은 지명수배자 신분으로 전국의 사찰을 전전하며 운둔생활을 하게 된다. 그의 삶에서 가장 어두웠다고 할 수 있는 그 시절에서 이 화백이 마주했던 전국의 자연풍경과 오방색의 단청을 비롯한 사찰풍경은 이 화백의 지친 심신을 치유함은 물론 자유와 평화를 상상하게 하고 또 다른 사상적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많은 한국 구상계 작가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해왔다. 현실과 자신의 역사적 경험 사이에서 자신만의 작업을 리얼리즘으로 구현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의 테마인 '脈(맥)' 연작은 그런 시대와 사회성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이 화백은 민중 정서와 리얼리즘 회화로 주목을 받아왔다. 작업 안에서 한국의 본질, 정체성, 민중 지향적 세계관으로 독자적인 작업세계를 구축하고 이해했다. 이 화백은 시대의 아픈 역사와 삶, 그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매료됐으며, 인류 문화의 기원이자 주체로서 인간의 힘과 존엄에 대한 깊은 사유를 그림 속에 담고자 했다. 이 화백은 20세기 근현대사를 지나며 견뎌야 했을 고단한 삶에도 불구하고 작가적 세계와 희망의 중심을 잃지 않고 견디고 또 견디는 주체적인 사람들을 '한국인', '민족', '민중'이라는 화두로 삼아 깊이 공감하며 작업했다.

현재, '脈(맥)' 연작 중 일부 작품은 2022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작업-보존수복 관리 중에 있으며, 수복이 완료되는 2024년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강하 화백은 영암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미술교육과와 동 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그룹 '남맥회'를 창립하여 이끌었고, 목우회와 한국파스텔작가회, 선과색 회원으로 활동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하며(5·18민주유공자) 샤머니즘 사상이 깃든 남도의 '맥(脈)' 연작과 남도의 정경이 담긴 '영산강과 사람들', '무등산' 연작을 대표작품으로 선보였다.

11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화집 '이강하의 지중해 미술기행'(엮은이 이선, 2009)을 발행했다. 100여 차례의 그룹전 및 기획초대전에 출품했다. 대표적인 전시로는 비무장지대 작업전(예술의 전당, 1994), 참다운 변화로 미래를-7개 도시 순회 개인전(1995), '95광주비엔날레특별전(광주비엔날레, 1995), 한·중 교류전(광저우미술관, 2005), 1주년 추모전 '이강하 열정의 삶과 투혼의 예술'(광주시립미술관, 2009), 6주기 추모전 '화가 이강하'(로터스갤러리, 2014), 굿모닝 양림 '남도를 사랑한 서양화가 이강하' 전(양림미술관, 2016), 지역작가 추모전 '이강하 영암을 그리다'(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2017) 등이 있다.

이강하미술관은 2018년에 문을 열었다. 이강하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 시대별 작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 대표 악보집 발간

찬불창작곡 풍경소리 55집과 함께
합창곡 악보집 '향천의 노래' 발간



좋은 벗 풍경소리가 찬불창작곡 풍경소리 55집(노래집)과 풍경소리 합창곡집 '향천의 노래'를 발표했다. 겨울을 맞아 발표한 이번 55집은 '향천의 노래'라는 제목의 합창악보집과 함께 발표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전망이다.

합창악보집 '향천의 노래'는 30여 년 찬불가의 대중화로 불교음악에 헌신해온 좋은 벗 풍경소리 대표 이종만(향천)〈사진 위〉 작곡가의 대표 합창곡 32곡의 악보를 모은 것이다. 풍경소리 55집 CD에는 신곡 '본래 그 자리'(작사·덕신 스님, 작곡·이종만, 노래·김재일)와 악보집에 실린 합창곡 19곡, 총 20곡이 담겼으며, USB에는 악보집에 실린 32곡 모두가 담겼다. 또한 CD와 USB음반에는 피아노 연주곡(피아노 연주·이혜민)을 함께 실어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좋은 벗 풍경소리의 55집 발표는 악보집과 함께 발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음반과 함께 발간된 악보집 '향천의 노래'는 작곡가 이종만의 30여 년 불사의 정리이면서, 찬불가 보급의 확장과 악보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만 대표는 "'향천의 노래'는 (재)대한불교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되었으며, 어린이·청소년과 대중문화포교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는 지현 스님과 덕현 스님 그리고 조계사를 비롯한 좋은 벗 풍경소리 대중의 성원으로 발표할 수 있었다"며 "악보집을 출판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함께했다. 그 중 작사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좋은 벗 풍경소리 총재인 지현 스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향천은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는 법문으로 대중과 함께 하고 있다"며 "찬불가 합창곡집은 불서이므로 찬불가를 부르는 모두가 부처임을 알고, 사바세계에 나투신 부처님의 화음을 모두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완 기자



악보집 '향천의 노래'와 풍경소리 55집

한국문화연수원 탁본체험부스 신설



정현 선사 작품 문수동자 목판 탁본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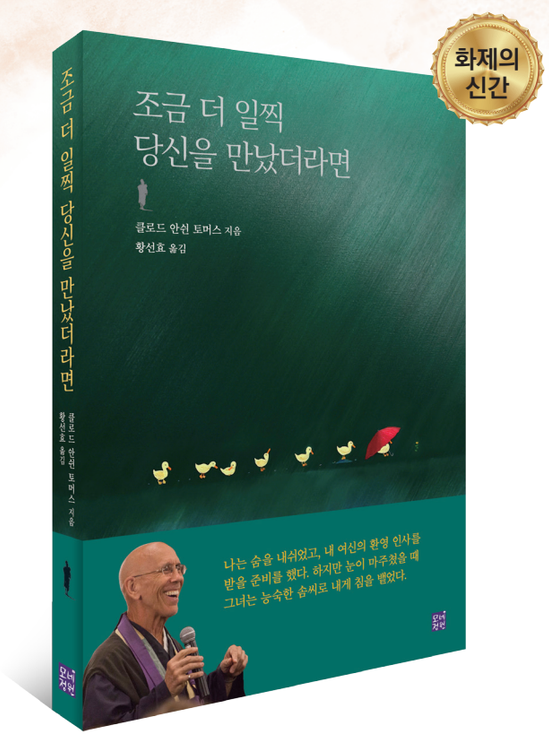
한국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 기와문화관에 문수동자 탁본체험부스〈사진〉를 신설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연수원은 지난 1월 19일 원적에 든 정현 선사의 작품 다수를 기증받았으며, 그 중 문수동자 목판본 8점을 탁본할 수 있는 '정현 선사 문수동자 탁본체험부스'를 개설했다.

이는 평생을 문수동자와 달마도 선화를 수행으로 법보시한 스님의 뜻을 기리고 지혜의 상징인 문수동자 탁본체험으로 모든 중생들이 지혜의 깨달음을 얻고 대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함이다.

연수원은 이번 문수동자 탁본체험부스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중이 연수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 선사는 평소 그림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내 공부하는 바가 그림을 통해 나타나니 그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토굴에 앉아만 있으면 그 나마 깨친 바를 어찌 전할 수 있을까요? 굳이 문수와 달마도를 그리는 것을 '수행'이라고 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문수와 달마를 그리는 과정은 분명 마음을 닦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옛 큰스님들께서는 마음자리 한 귀퉁이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 중 수행 아닌 바가 없다고 설하셨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수행'이라고 꼭 집어 말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의 경계를 완전하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놓으면 참으로 좋은 수행입니다."

박재완 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